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3호 [루계 제23225호] 주체99(2010)년 9월 30일 (목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대표자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선거된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대표자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뜻깊은 기념촬영을 하는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은 참가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 기념궁전광장에 도착하시자 전지를 진동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

이 터져오르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일심단결!>, <결사옹위!>라는 우렁찬 구호의 함성이 맑고 푸른 9월의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격정의 환호를 리치는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혁명실천으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

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답례하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영남동지, 최영림동지, 리영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항일혁명로투사들인 리을설동지, 김철만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인 김영춘동지, 전병호동지, 김국태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강석주동지, 변영림동지, 리용무동지, 주상성동지, 홍석형동지, 김정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들인 김양건동지, 김영일동지, 박도춘동지, 최봉해동지, 장성택동지, 주규창동지, 리태남동지, 김락희동지, 태종수동지, 김평해동지, 우동숙동지, 김정각동지, 박정순동지, 김창섭동지, 문경덕동지가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통성 번영을 위하여 헌신분투하여온 조선로동당대표자회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일련단심 당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온 조선로동당대표자회 참가자들이 앞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선봉적역할을 다함으로써 우리 당의 전위투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백전백승의 당의 령도따라 성스러운 김일성동지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김정일동지

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당선이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된데 대하여서와 최고지도기관이 선거된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오랜 기간 김정일총비서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은 전체 조선인민을 령도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함으로써 조선식사회주의 건설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최근년간 조선인민은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개선 등 분야에서 일련의 기적같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중조 두 나라는 두터운 전통적인 친선과 밀접한 지리적관계, 광범한 공동의 리익을 가지고있습니다.

중조선친선협조관계를 공고발전시켜나가는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국제정세가 아무리 변하여도 우리는 시종일관 전략적인 높이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중조관계를 틀어쥐고 수호하며 추진시켜나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중조관계를 부단히 새로운 단계로 올려세워 두 나라 인민들에게 더욱 큰 행복을 마련해주도록 하기 위하여 조선측과 함께 노력할것이며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다 큰 기여를 할것입니다.

총비서동지께서와 조선로동당이 조선인민을 령도하여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서 끊임없이 보다 큰 새로운 성과를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호 금 도

2010년 9월 28일

배이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일본조선문제간담회대표단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그에게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일본조선문제간담회대표단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드리는 꽃

바구니를 일본 히로시마슈도대학 명예교수인 히시키 가즈요시단장이 29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이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그에게 김정일주석 탄생 100

과 민족의 대경사라고 전하였다.

중국의 <신화매일전신>, <해방군보>, <해방일보>, 중앙TV방송, 로씨야의 이따르-따스통신, 쿠바의 프렌사 라피나통신, 싱가포르TV방송, 프랑스의 AFP통신, 국제라디오방송, 영국의 BBC 방송, 미국의 AP통신, UPI통신, VOA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도쿄신보>, <아사히신보>, <니혼게이지아신보>, NHK방송, 체스코주제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체스교조선친선협회 인터넷공공홈페이지 <조선-백두산>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보도는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김정일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소식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고 하면서 김정일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것은 조선의 수백만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최대의 영광이고 행복이며 조국

과 민족의 대경사라고 전하였다.

중국의 <신화매일전신>, <해방군보>, <해방일보>, 중앙TV방송, 로씨야의 이따르-따스통신, 쿠바의 프렌사 라피나통신, 싱가포르TV방송, 프랑스의 AFP통신, 국제라디오방송, 영국의 BBC 방송, 미국의 AP통신, UPI통신, VOA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도쿄신보>, <아사히신보>, <니혼게이지아신보>, NHK방송, 체스코주제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체스교조선친선협회 인터넷공공홈페이지 <조선-백두산>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보도는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김정일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소식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고 하면서 김정일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것은 조선의 수백만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최대의 영광이고 행복이며 조국

과 민족의 대경사라고 전하였다.

중국의 <신화매일전신>, <해방군보>, <해방일보>, 중앙TV방송, 로씨야의 이따르-따스통신, 쿠바의 프렌사 라피나통신, 싱가포르TV방송, 프랑스의 AFP통신, 국제라디오방송, 영국의 BBC 방송, 미국의 AP통신, UPI통신, VOA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도쿄신보>, <아사히신보>, <니혼게이지아신보>, NHK방송, 체스코주제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체스교조선친선협회 인터넷공공홈페이지 <조선-백두산>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조선중앙통신]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지 도 기 관 성 원 들 ,
당 대 표 자 회 참 가 자 들 과 기 념 촬 영 을 하 시 였 다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의 새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전당, 전군, 전민이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김일성민족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기 위한 대고조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조선로동당대표자회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당대표자회에서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결철한 념원을 담아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였으리니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을 전거하였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백전백승의 위대한 전통을 끝없이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더욱 활기차게 전진시켜나가는 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리정표를 마련한 중대한 정치적사건으로 된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천출위인시며 세계의 정치원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격조와 환희에 휩싸여있으며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오늘의 시대는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이 일떠서는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이며 주체혁명위업이 전면적으로 완성되어나가는 영광스러운 시대입니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데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가 있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진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으며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는 온누리에 힘있게 펼쳐지고있다. 찬란한 근기의 향기찬 정취가 총폭발되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계에 내세우는 속에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이룩되고있다. 선군혁명의 세련된 정치적참모부인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여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더욱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는데 이번 당대표자회가 가지는 거대한

역사적의의가 있다.

이번 당대표자회는 위대한 령도자를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역세게 싸워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린없는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주체혁명의 최고수위이시고 선군조선의 강대국의 상징이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모든 승리의 기치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혁명령도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조직적력과 전투력을 강고히 일심단결된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로 이끄는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이 백방으로 강화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제사회주의 수호전과 강성대국건설에서 세인승전관시기를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선군조선의 끝없이 장창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가 확대되어 우리 당의 전위적위력이 백방으로 강화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제사회주의 수호전과 강성대국건설에서 세인승전관시기를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선군조선의 끝없이 장창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당과 혁명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시대와 역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찬탄과 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감사, 절대적인 신뢰의 분출이며 장군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철석같은 의지의 발현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는 백전백승이며 장군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 김일성조선의 무궁무진한 영광이 있다것, 이것이 바로 대

표자회장에 차년친 총정의 열정이 있고 일심단결의 기상이었다.

빛나는 삶의 태양이시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기치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최대의 행복이고 영광이다. 역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에게 올림과 미례를 전적으로 의탁하고 일심단결된 장군님만을 받들어나갈려는 우리 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통해 우리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혁명의 필승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한 일심단결의 대외합으로 우리 당역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질것이다.

이번 당대표자회는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령도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이며 당의 전투적위력을 비강히 높여나가는 데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계기로 되었다.

조선로동당 제 6차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30년이 되었다. 이날은 백두의 천출위인들을 진두에서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의 비범한 령도력과 불패의 위력이 남김없이 펼쳐진 전투적로정이었으며 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변혁이 이룩된 영웅사시적행로였다. 류폐없이 간고한 시련과 역경을 뚫고 사회주의위업을 끝마친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역사적투쟁속에서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권위는 비강히 높은 경지에 올라섰으며 당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지지와 신뢰는 그 무엇으로도 허물수 없는 확고부동한것으로 되었다.

이번 당대표자회에서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역사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맞게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신 조선로동당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게 당규약을 개정하였다.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조선로동당규약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실데 대하여서와 우리 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을 쌓아올리신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새로 변형하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사상적전일체로서의 우리 당의 특성에 맞게 조선로동당 최고지도기관의 구성과 그 지위와 역할을 비롯하여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새롭게 규제하고 당의 당면목적을 명백히 밝히었다.

이것은 혁명과 온 사회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일적력량을 더욱 철저히 실현하여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주체혁명

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적전진을 확고히 담보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이번 당대표자회에서는 또한 당과 수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하고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대표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이 새로 선거되었다. 당대표자회를 통하여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주체혁명의 혁명적당,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령도적기능과 전투적위력을 높여나가는 데서 전환적의의를 증시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높이 조국땅에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확신성있게 향도해나가고있다. 이번엔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이 새로 선거됨으로써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게 되었으며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은 더욱더 활력에 넘쳐 전진하게 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령도따라 김일성민족의 무한한 투쟁력을 총폭발시키며 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것이다.

령도자의 위대성이자 당의 위대성이며 당의 높은 존엄과 권위, 비범한 령도력은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와 하나로 잇닿아있다.

우리는 믿지않아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이하게 된다. 당창건 65돐을 어머니수령님의 당건설업적을 만대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추켜올리기로 성대히 기념하며 그 기세로 대고조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나갈것이다.

전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든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의 새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한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간직하고 수령결사옹위 정신을 다 높이 발휘해나가자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선군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을 한속바쳐 결사옹위해나가는 길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삶의 보람과 영예가 있고 우리 조국의 양양한 전도가 있다. 우리 군대에 당대표자회참가자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담아 위대한 장군님의 높이신 권위와 안면을 백방으로 보장하며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장군님을 결사옹위해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전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장군님따라 주체의 한길로 역세게 싸워나갈 드린없는 신념을 간직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시성상 우리 당과 혁명을 이끄시며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김일성민족의 만년제보로 끝없이 숭배전시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모든 사업을 북돋아주시기 바란다.

전제 인민이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넘쳐넘어 심장을 불태워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결심은 끝없이 신실하며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대로 하면 이 세상에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 확고한 관점을 지니고 오늘의 대고조전군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인민적전진군으로 수호하여야 한다. 찬탄과 인민이 자기 령도자를 옹위하여 천결, 만결의 성세를 이루고 령도자와 한마음한뜻이 되어 평명한 미래에 힘차게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해나가자 한다.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당과 혁명은 주체혁명위업, 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의 생명선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추켜올리기로 성대히 기념하며 그 기세로 대고조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나갈것이다.

전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든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의 새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한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간직하고 수령결사옹위 정신을 다 높이 발휘해나가자 한다.

강성대국건설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은 우리 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지도기관에 영원히 높이 모신 영예를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고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결철히 옹호고수하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모든 사업을 북돋아주시기 바란다.

전제 인민이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넘쳐넘어 심장을 불태워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결심은 끝없이 신실하며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대로 하면 이 세상에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 확고한 관점을 지니고 오늘의 대고조전군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인민적전진군으로 수호하여야 한다. 찬탄과 인민이 자기 령도자를 옹위하여 천결, 만결의 성세를 이루고 령도자와 한마음한뜻이 되어 평명한 미래에 힘차게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해나가자 한다.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당과 혁명은 주체혁명위업, 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의 생명선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추켜올리기로 성대히 기념하며 그 기세로 대고조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나갈것이다.

전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든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의 새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한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간직하고 수령결사옹위 정신을 다 높이 발휘해나가자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선군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을 한속바쳐 결사옹위해나가는 길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삶의 보람과 영예가 있고 우리 조국의 양양한 전도가 있다. 우리 군대에 당대표자회참가자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담아 위대한 장군님의 높이신 권위와 안면을 백방으로 보장하며

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며 새로운 대고조전군속도를 창조해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최첨단물자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어나가야 한다.

당원들의 선봉적, 핵심적역할은 우리 당의 위업수행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모든 당원들은 세계가 한결같이 우러르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최고수위에 모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한 성원이라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국과 혁명, 시대와 역사앞에 지니고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당대표자회참가자들은 대표자회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다진 심장의 맹세를 언제나 잊지 말고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앞장에서 충실하게 관철해나가야 한다. 대고조전군에 들어가 그들을 영웅적투쟁으로 불려올리고 그 어렵고 힘든 일에 남몰래 뛰어들어 전격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야 할 진위투사가 바로 우리 당원들이다. 모든 당원들은 능숙한 정치활동가, 용감무쌍한 실천가가 되어 오늘의 대고조전군에서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당대표자회를 맞으며 양양된 대중의 정진력을 계속 고조시켜 당창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자량한 로명적성파로 빛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번엔 진행된 당대표자회가 가지는 역사적의의를 깊이 체득하고 당의 령도를 충실하게 관철하여 대고조전군의 하루하루를 영웅적위훈으로 빛내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빛나게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각급 당조직들의 전투적위력이 남김없이 펼쳐지게 하여야 한다.

전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당의 령도밑에 내의분별주의세력의 반동일책들을 짓부시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일떠서야 한다.

전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당의 령도밑에 내의분별주의세력의 반동일책들을 짓부시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일떠서야 한다.

전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당의 령도밑에 내의분별주의세력의 반동일책들을 짓부시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일떠서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당의 령도밑에 내의분별주의세력의 반동일책들을 짓부시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일떠서야 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보즈와나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보즈와나공화국 대통령
 티역중장 씨래제 카마 이안 카마각하

나는 보즈와나독립 44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99 (2010)년 9월 28일 평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슬로베니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마리아 아다나야 주조 슬로베니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7일 만수대의 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여기에는 김성기 외무성 부상과 슬로베니아공화국 대사관 성원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대화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들인 《강성대국의 불보라》, 《철보산》, 《개신문》이 상영되었다.

행사장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전제위인들의 혁명적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로정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행사장에는 백두산체스교 조선친선협회, 체스교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 체하-모라바공산당, 체스교슬로베니아공산당, 할로 노비니신문사, 디알로그신문사, 로씨야 페르스트로이유한책임회사, 포르도비 돔 아이메유한책임회사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들인 《강성대국의 불보라》, 《철보산》, 《개신문》이 상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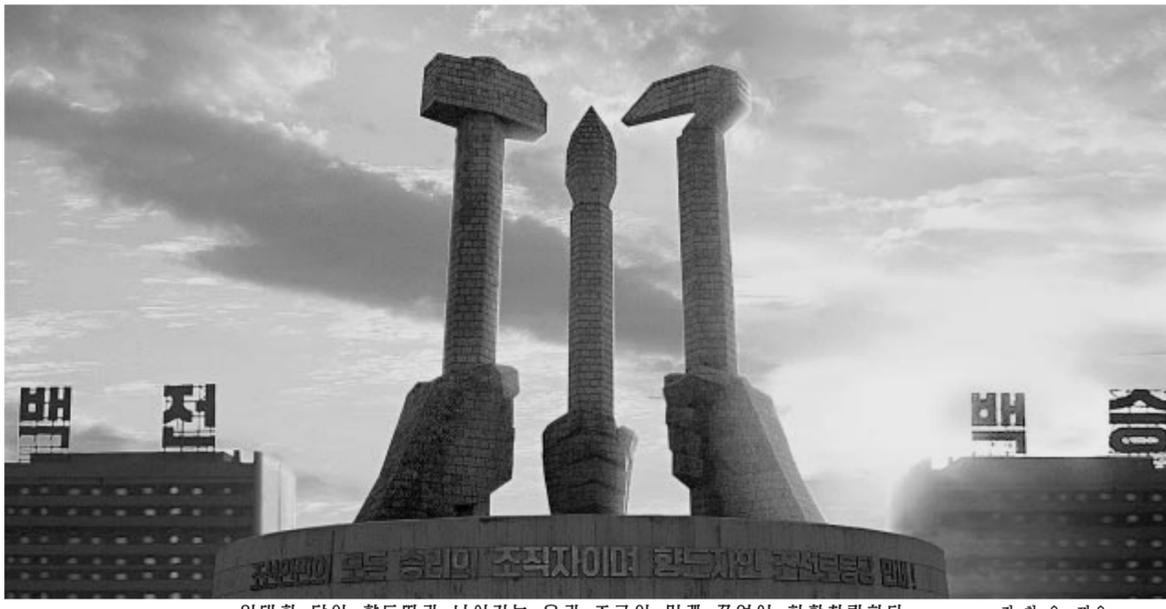
행사장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전제위인들의 혁명적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로정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행사장에는 백두산체스교 조선친선협회, 체스교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 체하-모라바공산당, 체스교슬로베니아공산당, 할로 노비니신문사, 디알로그신문사, 로씨야 페르스트로이유한책임회사, 포르도비 돔 아이메유한책임회사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들인 《강성대국의 불보라》, 《철보산》, 《개신문》이 상영되었다.

행사장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전제위인들의 혁명적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로정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행사장에는 백두산체스교 조선친선협회, 체스교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 체하-모라바공산당, 체스교슬로베니아공산당, 할로 노비니신문사, 디알로그신문사, 로씨야 페르스트로이유한책임회사, 포르도비 돔 아이메유한책임회사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당의 향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미래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김철우 촬영

하나의 자연현상을 보시고도

어느해 여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경치좋은 호수에서 한 일군과 꽃을 벌과 나비가 편속 날아드는 광경을 보게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일군에게 절로 보기에 다 향기로운 꽃들 같지만 벌과 나비의 움직임은 어떤 것이 향기있는 꽃이고 어떤 것이 향기가 없는 꽃인가를 쉽게 가르쳐주시었다. 이리하여 향기로운 꽃이 향기를 풍기는것은 벌과 나비가 모여들어 가루받이가 잘되어 열매를 맺을수 있기때문이다. 향기로운 꽃이 향기를 풍기는것은 벌과 나비가 모여들어 가루받이가 잘되어 열매를 맺을수 있기때문이다. 향기로운 꽃이 향기를 풍기는것은 벌과 나비가 모여들어 가루받이가 잘되어 열매를 맺을수 있기때문이다.

이민대중과의 혼연일체를 이루는 것은 우리 당의 존재방식입니다. ... 일군은 심원한 당사업리리를 깨우쳐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귀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는 그를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당일군들이 어머니다운 품모를 지니고 사람들을 대할때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

백승의 당기따라 산악같이 일떠선 불패의 전위대오

백승의 당기따라 불패의 전위대오 산악같이 일떠섰다. 이 한문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위대한 당, 위대한 영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철석같은 신뢰로 가슴끓이는 천만국민의 심장속에 신념의 맹세 넘쳐났다.

백승백승의 강철의 당 조선로동당은 무엇으로 위력한가. 시대의 이 물음에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역사적인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산악같이 일떠선 각 지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투쟁이 울려퍼진 대담을 주고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영도에서 자기들의 광명란 미래를 대다보고있으며 당의 영도가 있는 한 주체의 혁명위업을 반드시 완수할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있다.》

당대표자회가 열린 날 철의 기차 길결은 잠들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다는 보도가 전파를 타고 온 세상을 날을 때 철의 기차

에 뜨겁게 끓여진 감격과 환희, 격정적 기쁨...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 총진군의 봉화를 자신들에게 안겨주실경에 하시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이 가슴에 새겨왔고 당의 영도따라 기적과 혁신을 수놓으며 달려온 낮과 밤들이 뜨겁게 되새겨졌다. 그러나 아직 그들앞에는 당앞에 다진 맹세가 남아있었다. 생산현장에서는 격식없는 모임이 진행되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꾼이 대중에 앞서 나섰고 이이로당원들과 새 세대 용해공들이 심장을 치며 열변을 토하였다. 연설들은 길지 않았으나 모두의 마음은 하나같았다. 쇠물로 우리 당을 받들자! 전투가 시작되었다. 어려운 전투였으나 이들의 가슴에 지혜를 주고 용맹을 안겨준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공적이었다. 그의 전사된 영예였다. 밤이 깊어졌다. 그러나 누구도 전투현장을 뜨지 않았다. 지원물자를 안고 가족들이 달려나왔고 변방기업소기동예술팀원들이 혁명적인 노래를

안고 그들을 찾아왔다. 불도가니처럼 뚫어빈 전투현장, 철의 기차에 더 높이, 더 세차게 타오른 불노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력사의 그람을 위훈과 혁신으로 수놓은 사람들이 어찌 김책의 로동계급뿐이라.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2호초고전력전기를 일떠세운 강선이며 주체철생산체제를 더욱 완벽히 한 성장 등 대야금기지와 전력, 석탄, 철도 운수부문 로동계급도 그 한밤을 깨운한 망심과 위훈으로 수놓았다.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으로 이어진 이 나라의 무수한 낮과 밤들이 새겨진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많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을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그날 저 멀리 최첨단건설현장에서부터 수도의 10만대 살림집건설장을 비롯한 각지의 건설전투장들과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범타나 넘쳐나는 미풍이 신임, 동봉 등 협동농장들, 공장과 광산, 과학연구기지와 대학들이 새겨진 총성의 아름다운 위훈과 혁신의 이야기들은 참으로 감동없는

것일수 없는것들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열의는 각 지 당조직들의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더욱 분출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주상을 빛나게 실현하는 투쟁속에서 수많은 영웅들을 키워낸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혁명적수령관을 더욱 튼튼히 세우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정하고 도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장군님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일꾼들이 시, 군당위원회 일꾼들이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나가 위대한 선군정치로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잘 알리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평양시와 자강도, 함경북도, 강원도, 황해북도를 비롯한 각 지 당조직들의 지도밑에 힘있게 벌어진 정치사업은 광범한 대중의 양양된 열의를 더한층 폭발시켰다. 각 지 당조직들에서는 대중의 양양된 열의가 강성대국건설전에서 빛나는 승리로 이어

도록 하기 위한 화신식경제선동도 힘있게 벌여왔다. 당창건 65돐에 드리는 빛나는 로력적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전투장마다에서 광범한 대중을 로력적위훈으로 불러일으키는 경제선동의 목소리가 힘있게 울려나왔다. 공장, 기업소, 광산들의 전투현장, 막장들마다에 혁신의 소식을 전하는 속보들이 나날로 당일꾼들이 근로자들과 함께 전투를 해나가는 모습이 펼쳐졌다. 가는 곳마다가 그대로 화신식경제선동무대였고 불꽃튀는 기적과 혁신의 창조장이었던 그 모습들은 위대한 당기따라 산악같이 일떠선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모습이였다. 위대한 당, 위대한 장군님을 끝까지 받들어모실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전진하는 대중의 앞장에는 지난 수십년간 우리당이 키워낸 당일꾼들과 선군혁명위업의 선봉투사들이 미더운 당원들이 서있다. 바로 이들이 있어 수령, 당, 대중의 임심단결은 백배해지고 우리 당의 위력은 날로 높이 펼쳐지는것이다.

본사기자 립 현 숙

강철로 당을 받들며 불패의 전위대오

금속공업부문의 일꾼들과 로동계급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시였다.

《우리 인민과 군대는 우리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당의 뒤리에 더욱 굳게 뭉쳐 당의 영도를 경제선동의 목소리가 힘있게 울려나왔다.》

은 나라가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설레이고있는 지금 지나온 년대기마다에 강철로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있는 금속공업부문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는 당의 선군령도를 더욱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불같은 열의가 차넘치고있다.

전후 어버이수령님의 영도밑에 자립적민족경제속성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공적을 쌓아올린 금속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시하신 강성대국건설의 대들보를

역척같이 세우고있다. 북방의 철의 기차 길결이 끊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신 소식에 접한 김책의 로동계급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의 앞장에 내세워주신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철중산투쟁에서 혁명적기상을 남김없이 펼쳐갈 열의로 가슴끓이고있다.

매월 말저녁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온 김책의 로동계급은 뜻깊은 당창건 65돐으로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총공격을 드세게 벌여낸년 공업총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으며 년간 철강산출량을 돌파하기 위해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에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드릴 불타는 일념으로 펼쳐나 짧은 기간에 2호초고전력전기를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그 기세로 전진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야공공업력사에 없는 우리식의 제철제강법을 완성한 선진제강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크나큰 공지를 안고 주체철에 의한 강철생산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여나가고 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도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에 받들고 총공격을 힘차게 벌이며 철생산에서 날에날마다 놀라운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는 많은 연유와 노력,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박토처리능력을 종전에 비하여 훨씬 높일수 있는 대형원추형파쇄기를 자체의 힘으로 설치하여 쇠들중산의 틀과구를 열여놓고 2선방장 마파게용의 현대화를 훌륭히 수행한 기세로 계속 혁신의 한걸음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은물, 제명광산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쇠들중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9월말까지 년간 쇠들중산계획을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공지에 넘쳐 당창건 65돐을 로력적선물로 맞이하기 위해 총공세의 진격속도를 높이고 있는 금속공업부문 일꾼들과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생산성과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리 철 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시대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찬란하고 통성변영하는 시대로 될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격동적인 소식을 우리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 가스화대상건설장에서 듣게 되었다.

기쁨과 격정이 한데 어우러져 건설장은 그야말로 환희의 도가니였다. 하루가 다르게 완공으로 우뚝우뚝 키솟음하는 건설장에 세차게 일렁이는 감격의 파도를 가슴에 안으며 걸음을 옮기던 우리는 한 잔디밭에서 멈추어서게 되었다. 아직도 공사가 한창인데 갖가지 꽃나무들이 규모있게 심어진 잔디밭에서 건설자처녀들이 정성껏 연식을 뒀고있던것이다. 《매일이면 또 휴먼지가 쌓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 한 처녀가 속삭이듯 말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아버지장군님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리고싶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매일 연식을 닦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릴 그들의 마음을 읽어보느라 단 찬방건설련합기업소의 한 돌

기교싶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그 한사람의 마음만이 아니었다. 어버이장군님의 초장도강행군걸을 마음속에 따라걸으며 건설자들 누구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었다. 회화와 상징, 김책과 미풍 그 어디서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우리 장군님을 더 높이 받들어 칭찬도 행복도 다 바칠 하나의 열망만이 짙 차있다. 우리 장군님 아니면 그 누가 피눈물의 바다에서 인민을 일떠세울수 있었으며 그 누가 조선의 운명을 지켜 선군의 길을 걸을수 있었으랴. 하기에 당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하려는것은 천만국민의 드립없는 신념이며 의지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하늘만큼까지 따르려는 인민의 한마음! 이 일련단결은 그 무엇으로도 막지 못하리니 영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일심단결의 길에서 조선로동당의 승리적전군은 계속될것이다.

본사기자 조 향 선



선군조국의 위용떨치며 웅장하게 일떠서는 희천 2호발전소 언제 본사기자 강 정 민 찍음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진 역사적사변

선군령장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 찬란하다

역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우리 당의 로동계급은 김일성동지의 당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와 흥모로 세차게 뚫어번지고있다. 온 세상이 우러르고 인류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시는 절출한 위인을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것은 우리 조국과 민족만이 맞이하는 역사중의 대장사가 아니겠는가. 김정일시대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찬란하고 통성변영하는 시대로 될것이라고 하시며 내 조국의 앞날을 그처럼 기쁨에 넘쳐 축하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이 천만의 심장을 뚫고

울려주며 우리모두를 찬란한 태양으로 고무추동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는 영도자로서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 칭송을 받고있는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한 나라 민족, 혁명하는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은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영도력을 전폭으로 지닌 로동계급의 세련된 정치인으로 당의 수위에 모시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수심성상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 오시면서 우리 당과 력사안을, 세계혁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불세의 위인, 위대하고

절출한 영도자이다.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이 오늘 높은 존엄을 가지고 승리만을 아로새기며 위대한 미래로 즐겁게 전진하고있는것은 어버이수령님과 똑같은 신철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을 당의 수위에 모시고있기때문이다. 그렇듯 위대하고 한없이 인자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강성대국승리를 눈앞에 둔 력사적인 시각에 또다시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민족사적대장사를 맞고보니 잊지 못할 항일의 나라 백두대암에 터져왔던 환호성이 귀에 쟁쟁하여 흥분을 금할수 없다. 우리들은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을 끝없이 칭송하면서

백두광명성을 높이 받들어 모시자는 내용의 신념의 글말을 아를드리나무들에 새기고 또 새기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나가게해서 항일혁명투사들이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으며 우리들에게 뜻깊은 백두산련합을 수여하시였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하고 발전시켜온 영광스러운 우리 혁명의 1세대당계 실천적모범으로 우리 인민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진실으로 받들고 따르도록 하는에서 숭고한 의무를 다해나갈것이다. 항일혁명투사 리 율 설

선군혁명위업을 총대로 받들리

다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셨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혁명영도의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이 가장 투철한 사상과 신념의 장군, 그 어떤 강적도 일격에 짓통개버릴수 있는 현대적인 전투수단과 방어수단으로 자라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초강도강행군으로 수천수만리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선군시대 군건설을 위한 스승이시니,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결사대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였다.

대를 수령결사옹위의 정예대로, 무전막강한 위력을 지닌 백두산혁명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우리 당과 혁명무력의 불패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영도를 무적의 총대로 굳건히 받들어가려는것은 전제인민군장병들의 드립없는 신념이요 의지이다.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상도 충력도 배짱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그대로 닮은 선군혁명의 전위투사,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결사대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였다.

강성대국건설의 돌격대인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최첨단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이렇고 힘든 전투장들마다에서 최고사령관을 필멸 회날때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돌격속도, 일당백속도로 폭풍처럼 내달림으로써 조국평사에 길이 빛날 위훈을 창조해나갔다.

백두산혁명장군은 앞으로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에게 선군혁명영도의 앞장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를 무적의 총대로 충직하게 받들어갈것이며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총공격을 위한 스승이시니,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가 되도록 열을 기울여나갈것이다. 조선인민군 장령 김 택 구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감격적인 소식을 크나큰 기쁨과 흥분속에 받아안은 강선의 로동계급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 중 훈 찍음

당조직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갔다

이번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정열을 반영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였다.

이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평안북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혁명의 상징이시고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모든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영도를 더욱 충실히 받들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려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신념과 의리애 기초하에 김정일동지를 진실로 받들고 적극 옹호보위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변함없이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것은 전제 당원들과 군대와 인민의 최상의 영광이며 크나큰 행복이다. 지난 기간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우리 도안의 당조직들의 사업과 활동에서는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났으며 대개도 간직지건설을 비롯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적인 성과들이 수없이 이룩되었다. 도당위원회는 도안의 모든 당조직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영도따라 성스러운 김정일동지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해나가도록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떠나서는 우리의 운명과 조국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도당위원회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선군조선의 운명이고 미래이며 우리 당과 혁명의 불패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순결한 망심과 의리로 높이 받들어 모시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주었다. 도당위원회는 당조직들에서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주체사상교양, 선군사상교양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도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당조직들에서 우리 당의 군중선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며 계급진지를 굳건히 다져나가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는 당조직들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쟁취 대중의 정신력발동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것과 함께 주체의 당사업방법을 적극 구현하며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로동계급적원칙,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도록 하였다.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는것은 현 시 당조직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도당위원회는 당일꾼들모두가 혁명대고조로 들끓는 전투장들에서 대중과 승리를 같이하며 대중을 앞장서 이끌어나가는 전격의 기수가 되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는 각급 당조직들에서도 당원들이 탁월한 10명 당원들처럼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가 되도록 열을 기울여나갈것이다. 도당위원회는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분출시켜 선군시대의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해나가며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평안북도당위원회 비서 김 재 룡

